

#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노인장기요양 분야 취업의도 영향요인

황라일<sup>1</sup>, 김인아<sup>2\*</sup>

<sup>1</sup>신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sup>2</sup>서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Long-term care Employment Intention of Elderly Nursing College Students

Rah-Il Hwang<sup>1</sup>, In-A Kim<sup>2\*</sup>

<sup>1</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hinhan University,

<sup>2</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eoi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노인장기요양 분야 취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연구분석은 SPSS program을 이용하여 t-test, ANOVA,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취업의도는 평균 2.8점이었고, 간호대학생의 노인장기요양 분야 취업의도는 노인과 살았던 경험유무,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 가족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관심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취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평소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과 가족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 여부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간호대학생의 노인장기요양 분야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노인과 상호작용 및 접촉을 통해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한편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융합 프로그램의 운영이 요구된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노인장기요양, 취업의도, 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actors affecting the long - term care - related employment intention of nursing students in graduation grade. The study design was a descriptive study. As a result, the average intention of employment at the long - term care institution for the elderly was 2.8. It differed according to the experience of living with the elderly, the degree of interest in the elderly problem, long-term care benefits for the elderly in the family, and the concern of the long - term care insurance system. Therefore, in order to induce nursing college students to work in the long-term care field of elderly people, it is necessary to operate various curriculum and comparative programs that can get interested in the elderly problem. and long-term care insurance.

Key Words : Nursing student, Long-term care, Employment intention, Convergence

## 1. 서론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으로 노인수발에 대한 책임 패러다임이 가족에서 국가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1].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대상자들이 최대

### 1.1 연구의 필요성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Research Grant of ShinHan University 2019.

\*Corresponding Author : In-A Kim(inakim13@gmail.com)

Received April 29, 2019

Accepted June 20, 2019

Revised May 31, 2019

Published June 28, 2019

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국가에서는 재가중심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고 있고, 요양시설에 장기간입소할 수 있는 시설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가족요양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서비스를 통해 수급자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이 대상이다. 2016년 기준 장기요양 수급자는 97%가 치매, 뇌졸중,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을 1개 이상 가지고 있고, 85%가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이 있어 적절한 의료 또는 간호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2,3]. 더구나 치매, 망상, 우울, 분노, 공격과 같은 행동적, 정서적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4,5]. 이들에게 신체활동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기획하여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질병을 이해하고 돌볼 수 있는 전문직 의료인의 현장 근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2017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전문 인력 현황은 요양보호사 (340,624명), 사회복지사 (18,535명), 간호조무사 (9,845명), 간호사 (2,791명), 촉탁의 포함 의사 (2,198명), 물리(작업)치료사 (2,024명), 영양사 (1,160명), 치과위생사 (7명) 순으로, 장기요양 제공기관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전문 인력 중 유일한 의료인인 간호사의 비율은 0.7%에 불과하였다. 더구나 장기요양기관 20,377개의 기관 당 간호사는 0.14명 정도여서 상시 근무하는 간호사가 없는 기관이 상당히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6].

한편 윤숙희 등의 연구에서 노인요양시설에서의 환자 안전도에 대한 실무종사자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간호사의 순으로 낮게 인지하였고, 특히 간호사가 유의하게 낮게 인지함으로써 환자안전에 관련된 문제점을 더 민감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임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7]. 미국에서도 72개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설 내 배치된 간호사가 많을수록 환자안전 전문화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이와 같이 노인요양기관의 질적인 돌봄과 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배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2018년 전체 인구의 14.8%로 고령 사회로 진입하였고, 2025년 20.%, 2045년 35.6%, 2065년 42.5%로 예측되고 있다[6]. 이는 향후 지속적으

로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증가되고, 이에 따라 간호사의 수요 역시 더욱 증가할 것을 시사한다. 이렇듯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양적 증대와 함께 질적 차원의 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 기관 내 역량이 있는 간호사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간호학과 교육과정은 급성질환자 간호 위주로 편성되어 있고, 졸업자의 대부분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취업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노인장기요양 분야에 관련된 관심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미래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할 간호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핵가족문화에서 성장하여 노인과의 상호작용 경험이 부족한데다 허약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대상 임상실습 경험으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노인장기요양기관 분야 취업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상황이다[8].

이에 간호교육기관에서는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9],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고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을 기대하고, 간호학 교과과정에 노인간호학 관련 지식과 노인간호학실습 및 비교과프로그램 등을 통한 노인과 상호작용 경험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간호학과 졸업학년 학생이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관심 및 취업 의도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수준인지 그리고 취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규명하는 연구가 부족하였다. 노인인구 급증 및 장기요양 요구도 증가를 고려할 때, 향후 장기요양기관에서 전문직 의료인으로 종사할 인력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취업의도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그들의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진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관심도 및 취업 의도를 파악하고 노인장기요양 분야의 취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노인장기요양 분야에 종사할 전문직 간호사의 인력 확충을 위한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 분야의 취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노인부양 및 노인장기요양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노인부양 및 노인장기요양 특성별 노인장기요양 관련 분야 취업의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노인장기요양 관련 분야 취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 관련 분야 취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 경기도, 충청북도에 각각 소재한 4년제 3개 대학의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program 3.1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5으로 산정하였을 때 최소인원은 166명이었다.

먼저 연구자가 해당 간호학과 교수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하고 설문 협조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를 희망하여 서면 동의를 한 자로 선정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는 189명이었으나 불완전하게 작성된 설문지를 제외하여 전체 182명이 작성한 설문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10월 16일부터 12월 1일까지였고,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20분 정도였다.

### 2.3 연구도구

본 연구의 자료는 구조화 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간호사 취업의도 및 노인장기요양 관련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토대로 연구자가 설문지 초안을 작성한 후 노인장기요양 전문가 2인, 간호학과 교수 3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은 후 연구도구로 최종 활용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9문항, 노인부양의식 및 노인장기요양 관심 9문항, 그리고 노인장기요양 관련 분야 취업의도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노인부양의식은 노부모와의 동거의도, 미래 자신이 노인이 되었을 때 자녀와의 동거의도, 노인부양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를 의미한다. 노인장기요양 관련 특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경험, 노인장기요양 관련 교육경험, 노인장기요양 취업분야에 대한 인지된 지식, 업무수행능력, 관심

도를 의미한다. 노인장기요양 관련 취업의도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장기요양 관련 취업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2.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대상자는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에 대한 설명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절대로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밀보장 관련 내용을 읽은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서명한 졸업 학년 간호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2.5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노인부양 및 노인장기요양 관련 특성은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노인부양 및 노인장기요양 관련 특성별 노인장기요양 관련 분야 취업의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 3) ANOVA 분석 시 사후분석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 4) 노인장기요양 관련 분야 취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후향적방법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87.4%로 남성보다 많았고, 평균연령은 22.5세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62.6%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 순이었다. 경제적 수준은 '중'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58.2%로 가장 많았고, 주성장지는 대도시(47.8%)와 중소도시(42.3%)가 대부분이었다. 조부모와 동거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53.3%로, 조부모와 동거한 경험이 있는 경우 46.7%보다 다소 많았고, 현재 조부모와 동거하지 않은 경우는 83.4%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노인시설 봉사 경험은 87.6%로 대부분 있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Categories	Frequency (or Mean)	Percent (or SD)
Gender	Male	23	12.6
	Female	159	87.4
Age		22.5	1.4
Religion	Protestant	46	25.3
	Catholic	15	8.2
	Buddhism	7	3.8
	None	114	62.6
Economic Status	Low	40	22.0
	Middle	106	58.2
	High	36	19.8
Growth Area	Metropolitan	87	47.8
	Small city	77	42.3
	Rural area	18	9.9
Experience of living with the grandparent	Yes	84	46.7
	No	96	53.3
Number of families living together		3.7	1.1
Members over 65age in the family	Yes	28	16.6
	No	141	83.4
Volunteer experiences for the elderly	Yes	155	87.6
	No	22	12.4

\* SD : Standard Deviation

### 3.2 연구대상자의 노인부양 및 노인장기요양 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노인부양 관련 특성으로는 노부모와의 동거의도는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3.8%로, 노부모와 동거할 생각이 ‘없다’와 ‘모르겠다’ 응답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자신이 노인이 되었을 때, 자녀와의 동거의도는 ‘없다’가 52.8%로 가장 많았고, 자녀와 동거할 생각이 ‘있다’가 12.6%로 가장 낮았다. 노인부양문제에 대한 관심은 ‘보통’인 경우가 56.6%로 가장 많았고, ‘많음’, ‘별로 없음’ 순이었다.

다음으로 노인장기요양 관련 특성으로는 가족 중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혜 경험이 없는 경우는 81.9%로 경험이 있는 경우 18.1% 보다 많았다. 노인장기요양 관련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62.1%였고, 노인장기요양 시설의 실습경험이 있는 경우는 67.2%였다. 반면 노인장기요양 취업 분야 지식 수준에 대한 인지는 낮은 편(낮음과 매우 낮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8.6%로 높게 나타났고, 보통은 26.4%, 높은 편(높음과 매우 높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5.0% 순이었다. 노인장기요양 분야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는 보통이다가 47.8%로 가장 높았고, 낮은 편인 경우가 41.1%, 높은 편인 경우는 11.1%에 불과하였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관심도는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3.0%이었고, 보통 31.9%, 높은 편 6.6% 순이었다. 노인장기요양 관련 분야 취업 의도는 평균 2.8점(5점 척도)으로 보통 보다

다소 낮은 편이었다. Table 2

Table 2. Elderly care & Long-term care(LTC) - related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Frequency (or Mean)	Percent (or SD)	
Awareness of Caregiving for the Elderly	Intention to live with elderly parents	Yes	98	53.8	
		No	44	24.2	
		I have no idea	40	22.0	
	In old age plan to live with children	Yes	23	12.6	
		No	96	52.8	
		I have no idea	63	34.6	
	Interest in elderly issues	Not interest at all	0	0.0	
		Not interested	29	15.9	
		average	103	56.6	
		interested	45	24.7	
		Very interested	5	2.8	
Awareness of LTC	LTC insurance recipients in family	Yes	32	18.1	
		No	145	81.9	
	Educational experience about LTC	Yes	113	62.1	
		No	69	37.9	
	Practical training with LTC	Yes	121	67.2	
		No	59	32.8	
	Knowledge of the field of long-term care employment	Very low	23	12.6	
		Low	102	56.0	
		Average	48	26.4	
		High	9	5.0	
			Very high	0	0.0
	My ability in the field of long-term care employment	Very low	12	6.7	
		Low	62	34.4	
		Average	86	47.8	
		High	20	11.1	
			Very high	0	0.0
Interest in LTC insurance	Very low	34	1.8		
	Low	75	41.2		
	Average	58	31.9		
	High	10	5.5		
		Very high	2	1.1	
Intention to work in LTC			2.8	1.0	

### 3.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장기요양 관련 분야 취업의도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노인장기요양 관련 분야 취업의도를 살펴본 결과, 노인과 같이 살았던 경험이 있는 경우가 2.98점으로, 노인과 같이 살았던 경험이 없는 경우 2.67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716, p=.031$ ). 현재 노인과 동거 여부에 따른 노인장기요양 관련 분야 취업의도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현재 노인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취업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노인장기요양 관련 분야 취업의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able 3. Difference of intention to work in LTC by Subject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M±SD	t or F	p
Gender	Male	2.65±1.07	-0.765	.445
	Female	2.82±0.95		
Age	<22	3.00±0.90	1.583	.115
	≥22	2.73±0.98		
Religion	Protestant	2.80±0.89	0.273	.845
	Catholic	3.00±0.85		
	Buddhism	2.86±1.07		
	None	2.76±1.02		
Economic Status	Low	2.80±0.97	0.138	.871
	Middle	2.82±0.94		
	High	2.72±1.06		
Growth Area	Metropolitan	2.83±0.93	0.939	.393
	Small city	2.83±0.99		
	Rural area	2.50±1.04		
Experience of living with the elderly	Yes	2.98±0.98	2.176	.031
	No	2.67±0.93		
Number of families living together	≤4	2.78±0.97	-0.707	.480
	>4	2.91±0.98		
Members over 65age in the family	Yes	2.93±1.18	-0.601	.549
	No	2.81±0.92		
Volunteer experiences for the elderly	Yes	2.85±0.98	1.179	.240
	No	2.59±0.91		

### 3.4 연구대상자의 노인부양 및 노인장기요양 관련 특성에 따른 노인장기요양 관련 분야 취업의도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노인부양 관련 특성 중 평소 노인부양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경우(b), 노인장기요양 관련 분야 취업의도는 3.34점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이 낮거나 (a) 보통인 경우(a)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5.406, p<.001).

연구대상자의 장기요양관련 특성과 노인장기요양 관련 분야 취업의도를 살펴본 결과, 가족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은 경우가 3.19점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482, p=.014). 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심이 높은 경우(c)가 3.42점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심이 낮은 경우(a)보다 노인장기요양 관련 분야 취업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981, p=.008). Table 4

Table 4. Difference of intention to work in LTC by Elderly Care & LTC related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M±SD	t or F	p
Awareness of elderly parents	Intention to live with elderly parents	Yes	2.84±0.98	0.281	.755
		No	2.70±1.00		
		I have no idea	2.80±0.91		
Caregiving for the Elderly	In old age plan to live with children	Yes	2.83±0.83	1.444	.239
		No	2.69±1.04		
		I have no idea	2.95±0.89		
Interest in elderly issues	Interest in elderly issues	Not interested <sup>a</sup>	2.24±1.22	15.406	<.001*
		average <sup>a</sup>	2.69±0.83		
		interested <sup>b</sup>	3.34±0.82		
Awareness of LTC	LTC insurance recipients in family	Yes	3.19±1.00	2.482	.014
		No	2.72±0.95		
	Educational experience about LTC	Yes	2.88±0.97	1.421	.157
		No	2.67±0.95		
	Practical training with LTC	Yes	2.76±0.99	-0.565	.573
		No	2.85±0.93		
Knowledge of the field of long-term care employment	Knowledge of the field of long-term care employment	Low	2.74±0.99	1.728	.181
		Average	2.85±0.92		
		High	3.33±0.71		
My ability in the field of long-term care employment	My ability in the field of long-term care employment	Low	2.70±0.96	0.857	.426
		Average	2.84±0.98		
		High	3.00±0.97		
Interest in LTC insurance	Interest in LTC insurance	Low <sup>a</sup>	2.62±1.00	4.981	.008
		Average <sup>ab</sup>	2.93±0.86		
		High <sup>bc</sup>	3.42±0.79		

### 3.5 노인장기요양 관련 분야 취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 관련 분야 취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후진방법의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취업의도의 예측변인은 단변량 분석에서 취업의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던 변수인 조부모와 동거 경험, 노인부양문제에 대한 관심, 가족 중 장기요양보험 수혜 경험,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관심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회귀분석의 가정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13에서 .36이하로 나타났고, 예측변수들 간의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10],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10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Durbin-Watson 값이 2.042로 잔차의 독립성도 확인되어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1에서는 회귀분석을 실시할 때 선택한 4개의 예측변수를 모두 입력하였고, 모형2에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관심 변수가 제거되었고, 모형3에서는 노인과 동거 경험 변수가 제거되었다. 모형3에서의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과 가족 중 장기요양보험 수혜 경험의 예측변수가 취업의도를 설명하는 회귀식의 적합도가 가장 높았고( $F=15.511, p<.001$ ),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과 가족 중 장기요양보험 수혜 경험 변수가 노인장기요양 관련 분야 취업의도를 14.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Table 5. Factors Influencing intention to work in LTC

Model		$\beta$	SE	$p$	adj R2	F ( $p$ )
1	constant			.000	14.0	8.120 (<.001)
	A	-0.076	.137	.291		
	B	0.330	.100	.000		
	C	-0.130	.179	.072		
	D	0.044	.032	.547		
2	constant			.000	14.3	10.745 (<.001)
	A	-0.077	.137	.279		
	B	0.337	.098	.000		
	C	-0.136	.177	.057		
3	constant			.000	14.2	15.511 (<.001)
	B	0.347	.098	.000		
	C	.0146	.175	.039		

- A. Experience of living with the elderly
- B. Interest in elderly issues
- C. LTC insurance recipients in family
- D. Interest in LTC insurance

#### 4. 논의

본 연구는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관심도 및 취업 의도를 파악하고 노인장기요양 분야의 취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노인장기요양 분야에 종사할 전문직 간호사의 인력 확충을 위한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노인부양 관련 가치관을 조사한 결과, 대상자가 미래 자신의 노부모와 동거할 의도는 과반수 정도이고 자신이 노인이 되었을 때 자녀와 동거할 의도는 1/5 수준에 불과하였다. 이는 대학생 대상 노인부양의식 관련하여 미래 부모 및 자녀 동거 의도에 대한 조사 결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11].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이 낮고 부모 역시 노

후에 자녀에게 부양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로 낮아지는 경향을 재확인한 결과로, 앞으로도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노인장기요양 제도를 포함한 노인 정책 개발 및 대응이 국가적으로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미래 노인 부양을 책임질 대학생 세대가 가지고 있는 노인부양에 대한 가치관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고령 시대에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비간호 인력의 경우에는 노인 관련 이론 교과목을 이수하고 노인 분야 실습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인부양에 대한 의식은 낮은 결과를 고려할 때,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노인과의 긍정적 소통 및 경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내용을 설계해야 할 것이고, 동시에 간호교육과정 내에서도 융합적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제언한다[12].

본 연구결과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경우 교육과정 중 노인장기요양 관련하여 이론 교육 및 실습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2/3 정도였으나, 이들이 노인장기요양 관련하여 스스로가 인지하는 지식 정도와 능력 정도 그리고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전반적 관심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미 20여 년 전부터 미국 간호대학에서는 노인간호학을 필수 교과목으로 개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과는 달리 우리 나라는 노인간호학 교과목을 전공 선택 또는 교양 교과목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노인간호학 실습 교과목이 미개설된 상황에서 이론 교과목만으로 개설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동일한 맥락에서 볼 때, 향후 간호교육에서 노인간호 관련 교과 과정을 필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급성기 간호제공 이외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을 대상으로 양질의 노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13,14]. 간호교육 중 너싱홈에서의 긍정적 학습 경험은 기본적 간호 기술 및 능력 함양을 통해 간호 학생들의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고 미래의 자신의 취업 분야로 너싱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실습교육 중에서 노인요양시설 실습 기회 제공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5,16].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노인장기요양 관련 분야 취업 의도의 경우 5점 만점에 2.6점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학과 학생 대부분은 졸업 후 우선 임상 간호사로 취업하고 그 이후 여러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졸업 시 대체로 취업이 보장되어 있어 재학 중 적극적으로 직업 환경을 탐색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라 해석할 수 있겠다[17].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질환 증가 및 그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인정자 역시 증가될 것이며, 노인장기요양 수요 증가에 따라 시설 및 재가에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간호사도 2020년 11,287명, 2025년 13,836명, 2030년에는 16,764명의 간호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간호사의 대부분은 임상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노인요양시설에 관한 관심과 활동이 매우 저조함에 따라,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 분야에서 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연구를 제안한다[18]. 더구나 노인요양시설은 병원과는 달리 의사가 상주하지 않은 상황에서 간호사가 야간 및 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병원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보수, 보호자들의 과대한 기대 및 의료분쟁 가능성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쉬운 상황에 처해 있다[19]. 노인요양시설 근무조건 개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며 노인요양시설 간호사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 등 긍정적 이미지를 예비간호인력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 분야 관련 취업의도는 노인과 동거 경험, 평소 노인부양문제에 대한 관심, 노인장기요양 혜택을 받은 가족 여부, 노인장기요양 분야에 관심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는 노인과 함께 생활하거나 노인을 돌보는 경험이 있는 자 그리고 노년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노인 분야에 종사하려는 업무 선호도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20]. 이렇듯 노인부양 및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관심 및 인지 등은 간호학생이 졸업 후 심신 기능장애가 있어 일상생활능력이 부족한 노인들을 돌보는 노인장기요양 분야 업무 현장에서 간호사로서 활동할 직업선택 기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학생들의 노인부양 및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핵가족 중심의 가족구조에서 성장한 젊은층의 경우 노인과의 접촉 기회가 적다는 점과 보건복지계열 학생의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노인 대상 봉사 경험이 관련 있었다는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21], 노인을 보살피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 봉사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 간호학생을 편의표집하여 조사하여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연구대상자를 확대

하여 간호학생의 노인장기요양 분야 관심 및 취업 의도 등을 규명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규명된 노인장기요양 취업 의도 관련 요인 이외 노인장기요양 분야 취업 의도 관련 다양한 변수를 포함한 연구와 대상자의 취업 의도가 실질적으로 취업과 관련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이상의 본 연구는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장기요양 인정자의 특성상 일상생활수행 지원과 함께 만성질환 관리와 갑작스러운 응급상황 발생 등 전문적 간호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노인장기요양 분야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에, 졸업 학년 간호학생의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관심과 노인장기요양 관련 취업의도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노인장기요양 분야 간호사 인력 확충과 이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관심도 및 취업 의도를 파악하고 노인장기요양 분야의 취업 의도에 영향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졸업 학년 간호대학생의 노인장기요양기 관 취업의도는 평균 2.6점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노인과 살았던 경험유무,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 가족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관심의 정도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기관 취업의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장기요양기관 취업의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과 가족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은 경우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을 이끌 수 있는 다양한 교과/비교과 융합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한다. 특히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이론, 현장 견학 및 실습 기회를 강화하여 예비간호인력의 노인장기요양 분야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한편으로 예비간호인력이 직업적 사명감을 가지고 종사할 취업분야로 장기요양 분야를 인식하고 이를 통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과 안전한 환경을 구축을 위한 전문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 기관 내 근로환경 개선 정책이 모색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 REFERENCES

- [1] Y. H. Cho, S. W. Lee, & J. Y. Park. (2013). The Introduction of the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and the Changes in Working Conditions of Care Worker: with Special Attention to Wages and Employment Types,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15(2), 193-215.
- [2] Y. K. Lee et al (2017). *Establishment of the 2nd Long-term Care Basic Plan*, Osong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3] I. K. Choi. (2016). A Study on the Linkage Model of Community Elderly Protection System: Focusing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6), 259-266.  
Doi : <http://dx.doi.org/10.15207/JKCS.2016.7.6.259>
- [4] J. S. Kim & H. Y. Oh. (2006). Perceptions and attitude on use of physical restraints among caregivers on long term care facilitie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6(2), 347-360.  
Doi : G704-000573.2006.26.2.002
- [5] M. K. Kim, D. H. Park, & O. H. Ahn (2014). The Care Giving Burden of Primary Caregiver based on Nursing Needs of Long-term Care Insurance Grad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5(3), 7-16.  
DOI : <http://dx.doi.org/10.15207/JKCS.2014.5.3.007>
- [6] Statistics Korea. (2017). *Elderly statistics in 2017*. KOSIS [Online].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DT\\_35006\\_N022&vw\\_cd=MT\\_TMI\\_TITLE&list\\_id=A05\\_A05\\_6&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TMI\\_TITLE&path=%252FeasyViewStatis%252FcustomStatisIndex.do](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DT_35006_N022&vw_cd=MT_TMI_TITLE&list_id=A05_A05_6&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TMI_TITLE&path=%252FeasyViewStatis%252FcustomStatisIndex.do)
- [7] S. H. Yoon, S. Y. Kim, & X. Wu. (2014). Perception of Workers n Patient Safety Culture and Degree of Patient Safety in Nursing Hom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20(3), 247-256.  
Doi : 10.11111/jkana2014.20.3.247
- [8] K. R. Park & Y. S. Yi. (2002). A study on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in later life. *The Journal of Korean Geriatrics Society*, 22(3), 53-66.
- [9] M. Courtney, S. Tong & A. Walsh. (2000). Acute-care nurses' attitudes towards older patients: A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6, 62-69.  
Doi: 10.1046/j.1440-172x.2000.00192.x
- [10] J. Fox. (1997). *Applied regression analysis, linear models and related methods*. Thousand Oaks, CA : Sage Publications.
- [11] Y. K. Yang. (2013). A study on aging knowledge, attitudes and awareness about supporting the aged in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19(4), 498-507.  
Doi : 10.5977/jkasne.2013.19.4.498
- [12] M. J. Shin. (2011). Perception about the elderly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interested in the elderly care busines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17(4), 551-562.
- [13] A. Berman, M. Mezey, M. Kobayagum, T. Fulmer, J. Stanley, D. Thornlow & P. Rosenfeld. (2005). Gerontological nursing content in baccalaureate nursing programs: Comparison of findings from 1997 and 2003,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21(5), 268-275.  
Doi : 10.1016/j.profnurs.2005.07.005
- [14] C. G. Kim et al. (2013). Gerontological nursing education in bsn programs in South Korea: Present status and direction for improvement in the future. *Journal of Korean Gerontology Nursing*, 15(3), 185-191.
- [15] A. M. L. Husebø, M. Storm, B. B. Våga, A. Rosenberg, & K. Akerjordet. (2018). Status of knowledge on student-learning environments in nursing homes: A mixed-method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7, 1344-1359.  
Doi: 10.1111/jocn.14299.
- [16] J. A. Kim. (2016). Nursing student experiences of gerontological nursing practicum at elderly care facilities, *Qualitative Research*, 17(1), 112-121.
- [17] Y. J. Lee & Y. S. Kim. (2017).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career decision autonomy, and career search behavior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23(4), 474-485.  
Doi : 10.5977/jkasne.2017.23.4.474
- [18] M. S. Park & S. M. Kang. (2010). Demand prospect of professional workers in execution of the elderly's long-term care insurance -nurse, social welfare, care probation professional workers-,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17(3), 423-440.  
Doi : 10.5351/CKSS.2010.17.3.423
- [19] J. S. Lee, R. I. Hwang, & M. K. Lim. (2015). A study on working conditions and factors related to job satisfaction of nurses in the long-term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9(3), 551-564.  
Doi : 10.5932/JKPHN.2015.29.3.551
- [20] G. E. Gomez, E. A. Young, & E. A. Gomez. (1991). Attitude toward the elderly, fear of death, and work preference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Gerontology Geriatric Education*, 11(4), 45-56.  
Doi : 10.1300/J021v11n04\_04
- [21] R. I. Hwang. (2017). Perception toward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among seniors in health and welfare colleg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1), 193-201.  
Doi : 10.15207/JKCS.2017.8.11.193



황 라 일(Rah-Il Hwang)

[장학원]



- 1999년 2월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4년 8월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0년 9월 ~ 2014년 2월 : 수원여자대학교 간호과 조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신한대학교 간호

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공공보건사업, 노인장기요양
- E-Mail : hwangri@hanmail.net

김 인 아(In-A Kim)

[장학원]



- 2002년 8월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관리학석사)
- 2012년 8월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서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인사조직관리, 직무스트레스, 노인간호

- E-Mail : inakim13@gmail.com